

## 디자인 도시\_서울

### Design City\_Seoul

focus

지난 10월 20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CSID 총회 폐막식에서 서울이 '2010년 세계디자인 수도' 로 지정됐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공공디자인이라는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도시 디자인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 든든한 격려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미래는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라고 항상 부르짖어오던 필자로써는 사실 서울이 디자인수도로써 탈바꿈 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디자인 도시' 가 빨리 다가오길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상상해온 디자인 도시란 어떤 것일까?

디자인 자문을 위해 ○○ 구청의 구석구석을 다니다보면 새삼 아직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구나하고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나마 선두적으로 앞서가는 ○○구청 덕분에 현장을 둘러보고 자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만든다.

사실 디자인이란 명목아래 조금이라도 나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몇몇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애쓰는 모습은 실로 필사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언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비 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정리되지 않은 주변을 정리해가며, 정리될 것을 예상해가며 참으로 어려운 작업을 느낀다. 그 건물의 디자인만 볼 수도 없고 또한 주변과의 조화 때문에 건축사의 독창성과 창작성을 또한 무시할 수도 없다.

하물며 이 커다란(?) 서울을 앞으로 디자인도시로 정리함에 있어 서울시는 많은 굴곡이 있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정책도 있고, 많은 계획도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과연 우리가 꿈꾸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끊이질 않는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요코하마시는 1988년 요코하마 디자인 도시선언과 30년 간의 도시디자인 활동을 인정받아 2005년 일본 굿디자인상 금상을 수상한 도시이다. 이 도시의 성공의 관건은 건물, 간판, 다리, 도로 등 공공디자인적인 요소

리처드 글러먼은 “디자인도시의 조건은 인프라, 도시계획, 디자인 등 세 가지로 본다.  
서울이 디자인 수도로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디자인보다는  
인프라, 도시 계획이 더 중요하다. 도시가 경제·사회적으로 건강하면,  
좋은 디자인의 빌딩은 결국 보너스 같은 것이다.”라고 디자인 도시의 조건에 대해 말했다.  
이제는 서울도 한단계 뛰어 넘어 예술적 감성이 자극되고 창조적 에너지가 총만할 수 있는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들이 조화롭게 서로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라 한다. 물론 요코하마시의 도시 디자인을 담당해오고 있는 쿠니요시 나오유키 도시개발부  
서 디자인실장이 계속적으로 담당해온 것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요코하마시의 시장이 네 차례나 바뀌는 동안  
쿠니요시 실장이 계속 도시 디자인을 담당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의 일관성있는 정책, 디자인의 조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다면 성공적인 디자인 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골  
목길을 걷다가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마치 여기가 한모퉁이의 전시관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 다시금 되물어본다.

며칠전 한국에 방문한 피카소(스페인 말라가)·앤디워홀(피츠버그)·구겐하임(베를린) 미술관 등을 설계한 건축사 리처드 글러먼  
(60)에게 한 기자가 디자인 도시의 조건에 대해 물어보았다

“디자인 도시의 조건은 인프라, 도시계획, 디자인 등 세 가지로 본다. 서울이 디자인 수도로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디자인보  
다는 인프라, 도시 계획이 더 중요하다. 도시가 경제·사회적으로 건강하면, 좋은 디자인의 빌딩은 결국 보너스 같은 것이다.”

좋은 디자인의 건축이란 우리(도시)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일까...

지금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도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전체를 새롭게 바꾸려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제는 서울도 한단  
계 뛰어 넘어 예술적 감성이 자극되고 창조적 에너지가 총만할 수 있는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리처드 글러먼의 말을 읽으며 디자인이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해 보며 자신도 모르게 견고 싶은 도시... 따뜻한 도시... 그런 ‘디자인 도시\_서울’을 꿈꿔본다.